



[해설] 투자처 찾아 40兆 뭉치듯 해외 주식직구 03



Economy

코스피	↑	2229.76 (+24.13)	코스닥	↑	750.69 (+2.64)
금리 (미국 3년)	→	1.80 (0.00)	환율 (원-달러)	↓	1123.50 (-4.70) (20일)

금융권도 제조업도 '강성노조'에 몸살

연초부터 대한민국 기업들이 강성 노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통의 강성 노조인 현대·기아차와 조선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권도 '노조 리스크'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동 존중'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은 노동계는 회사 경영환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 혼들기에 나서고 있어 대외 경쟁력 약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편집자주)

후 증산도 조선빅딜도 무조건 걷어차는 노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과 내수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로 위기에 봉착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흥행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출시 당시 내수에서 2만5000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계약대수는 5만대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초기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증산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의 벽에 막힌 상태다. 1987년 단체협약에 따라 생산량 조절을 위해 노조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현대차 노조는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 측이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기면서 현대차가 소형 SUV의 생산 기지로 생각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설립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여기에 팰리세이드의 북미 수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지난 18일 통합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물량확보 시급 노조, 생산대수 확대에 반발

현대중
금속노조 대우조선 인수반대 정의행위 찬반투표 진행도

출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는 물량 확보에 고삐를 죄어야 하지만 이것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해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요구하는 3년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3년 투

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정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로 잠정 중단했던 2018년도 힘단협 2차 잠정협약안 찬반투표도 동시 시작했다.

지난 19일 현대중공업 사장단은 "한쪽 희생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호소문을 내고 노조를 설득했지만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투표를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임단협 타결 실패와 조선 빅딜까지 모든 현안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KB 이어 기업銀 노조도 “노동이사제로 경영 견제”

금융권에선 '노동이사제'가 화두다. 노동자가 민간 기업의 이사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국민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KB금융 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신입 사외이사 후보로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유럽을 예로 들며 민간 기업에도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경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브리텔의 유럽노동연구소에 따르면 31개 주요 유럽국가 중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를 포함한 19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고,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노동이사제 찬반론〉

찬성론	구분	반대론
근로자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	논거	기업 의사결정 늦추고, 경영책임 모호해져
노사간 갈등 감소		노조에 경영장악 우려
노동자 권한 책임부여로 생산성 향상		이해관계자 중 근로자만 참여시킬 필요없어
노동존중 문화확산으로 갑질 방지가능		노사협의로 반영 가능
독일 등 유럽 이미 도입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은 역사와 문화 달라

KB노조, 사외이사 추천 기업銀 노조도 후보공모 “근로자, 경영참여 필요”

기업 자율성·경쟁력 훼손 노조에 경영 장악 우려도

◆“갑질...오너리스크 예방”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는 측은 노동자에게 경영정보를 공유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갑질과 오너리스크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주주보다 경영진의 독선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없애

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경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직장에 고용된 기간에 부여되는 과업을 단순히 수행하고 정해진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악화될 때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감봉도 되며 폐업이나 도산의 위험도 공동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신속한 의사결정만 늦춰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자칫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유통·금융사, 일제히 3·1운동 100주년 마케팅 돌입

“지금 내가 하는일이 독립운동”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3·1운동 100주년 마케팅에 나섰다. 캠페인과 기부행사가 펼쳐졌고, 독립운동 정신을 담은 다양한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과 식품, 흡소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캠페인이 확산되는 추세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독립기념관과 '독립운동사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함께해요 3·1운동 100주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CU는 점포내 안내게시판에 기존 상품 정보 대신 국가보훈처가

CU '이달의 독립운동가' 게시 농심, 안성탕면 판매금액 기부 공영쇼핑 독립운동 빛낸 광고

KB·신한금융, 캐치프레이즈에 유관순 열사·임시정부정신 연결

선정한 '2019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를 매월 게시한다. 3월 손병희 선생을 시작으로 12월 윤봉길 의사까지 365일 24시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인기 PB상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3·1운동 사적지도 소개한다. HEYROO PB상품 가공유, 스낵 13종을 선

정하여 만국 공원(인천), 아우내장터(천안), 미미 동산(제주) 등 전국 각지의 3·1 운동 사적지를 제품 패키지에 넣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CU를 찾는 월 평균 방문객 수는 약 1억 2000만 명으로 BGF리테일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민이 최소 월 2회 이상 CU에서 직접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안성탕면 판매금액의 3.1%를 국가유공자 복지와 보훈선양사업에 기부한다.

안성탕면과 해물안성탕면 멀티



농심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부 캠페인.

팩 포장 옆면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캠페인 문구를 넣은 한정판 패키지를 제작해 3월 한 달간 안성탕면을 구매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성탕면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월 평균 약 90억원 수준이다. 판매금액의 3.1%를 환산했을 때



KB금융 광고

마담엘레강스김혜정대표는대한민국애국부인회장을 지낸 교육자 김마리아 회장으로 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로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권기옥씨는 생들기름들개그대로 이인향대표가 나섰다.

<3면에 계속> /양상미·신원선 기자 smahn1@